



성명서

사무총장 우 인 식 변호사

연락처 : 02-599-4434

이메일 : hanbyun@hanbyun.or.kr

홈페이지: www.hanbyun.org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친인척 채용비리를 엄단하라

올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친인척 부당채용 사례는 무려 13개 기관 365명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무기계약직 근로자 1285명중 108명을 비롯하여 강원랜드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도시주택(SH)공사 등 다수 기관에서 친인척 채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민노총 산하 노조가 지배하는 일부 민간기업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고용세습이 자행되어 왔지만,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및 친인척 채용비리는 공공기관 취준생과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그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중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진상을 밝힌 후 책임자는 엄단하고,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채용은 취소함으로써 시정함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문제가 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국회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야당들이 제안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도 얼마 전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마구 칼을 휘둘렀던 그 열정으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과 친인척 채용비리도 신속 엄정하게 수사함이 마땅하다.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현 정부가 수없이 외쳐온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2018. 10. 2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공동대표 석 동 현